

특별기고

## 함께 놀면서 부처님을 배우다

공연 '템스'를 보고



김태희  
서울시의원

종교는 어려워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천주교, 기독교 신자들도 한국의 문화에 융화된 불교에 그 정신적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산행을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산에 올라 고찰을 들르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명산고찰이다. 선과 악, 인간의 수행과 해탈을 주제로 궁극의 자비를 깨닫는 종교인 불교는 일반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종교이다.

그러나 힐링 너비별 타악공연 템스는 권력, 식탐, 색욕 등 각각 다른 6명의 도둑들이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해학을 담아 힐링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힐링너비별 타악 공연 '템스'가 조계사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6월 21일 VIP사회에서 공연을 관람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가 많다. 불교가 한국의 문화에 미친 영향은 막대한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종교의 진리는 변함없지만 종교를 전달하는 포교의 방법은 새롭게 바뀌고 있다.

어렵고 지루한 법문의 설법 보다는 템스와 같이 가슴으로 느끼고 온 몸으로 울리는 공연을 통해 전달하는 포교는 잊지 못할 감동과 함께 새로운 문화가 될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한민족과 동고동락하며 정서적 바탕을 이루어왔던 한국 불교가 부영 스님의 유희 있는 공연 기획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불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작은 감동이 사람의 한 평생을 좌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템스가 작지만 위대한 공연으로 자리잡아 가기를 기원하며 템스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유쾌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 죽는 순간도 '깨어 있음' 잊지 말아야

마목 무용단 바르도 공연...7월 9일까지 성균소극장서



죽은 후에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중유라 한다. 이는 일종의 영혼신으로 혈액으로 보유되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으로 성립된다는 의미

죽은 후에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중유라 한다. 이는 일종의 영혼신으로 혈액으로 보유되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으로 성립된다는 의미

다. 이 중유의 기간은 49일이라는 설에 근거, 사람이 죽은 후 그가 행복한 다음 생애 태어나도록 명복을 빌어 기도·독경하는 풍습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사십구제(齋)다.

마목무용단(대표 윤민석·사진)이 7월 9일까지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공연 '바르도'를 펼친다. '바르도'는 티베트어로 중유로 해석된다. 'Bar'는 '사이'이고 Do는 '내던져짐' 또는 '허공에 걸림'이란 뜻이다. 한 장면의 '완성'과 다른 한 장면의 '시작' 사이의 과도적인 상태나 간격을 마목이 춤으로 표현해낸다.

윤 대표는 "바르도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사이로 해석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건물과 건물 사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사이의 대낮 등의 시간이나 공간 등의 사이로 볼 수 있다. 그 누구의 간섭과 방해가 없는 허공이라는 위치에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며 바르도의 의미를 해석한다.

윤 대표가 생각하는 바르도는 허공에 걸

려 있는 현재 그 순간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는 "늘 불교 사상에 관심이 많은데 이 바르도의 의미를 알고부터는 죽어 있는 시간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착안 공연을 만들게 되었다. 1~2초 사이의 그 공간마저도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 곧 바르도"라며 "유치함을 찾아내고 실행할 때 동작과 동작 사이를 인식하고 깨닫는 그 순간을 춤으로 표현했다" 설명한다.

불교사상에 심취한 윤 대표는 동양사상

공간과 공간 시간과 시간 사이  
집중의 훈련이 곧 '바르도'  
11월 <능엄경> 공연도 준비중

과 불교정신을 배경으로 한 '하얀 코끼리'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마목은 '바르도'에 이어 11월 4일~17일까지 대학로 꿈꾸는 공작소 소극장에서 <능엄경>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윤 대표는 "이번 공연은 <능엄경>으로 가기위한 중간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능엄경이 아난의 수난을 통한 깨달음을 얻는 내용이라면 바르도는 어떠한 시·공간의 사이에서의 깨달음을 말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렇듯 마목 무용단은 작품 하나하나에



마목무용단이 7월 9일까지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허공 사이 스스로 깨달음'을 주제로 공연 '바르도'를 펼친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관객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목(磨墨)이라는 이름처럼 벼루에 먹 가는 마음으로 꾸준히 활동을 하겠다고 말하는 윤민석 대표. 그는 "마목무용단의 공연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하

## MBC '아빠 어디가' 현덕사 템플스테이

고무신던지기 게임 큰 웃음 안겨



'MBC 일밤-아빠 어디가' 출연진들이 현덕사 템플스테이에 참여 고무신 던지기를 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에서 진행된 'MBC 일밤-아빠 어디가'가 아빠들과 스님들이 함께 한 고무신 던지기 게임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다.

6월 23일 방송된 방송에서 성동일과 이종혁, 송중국, 김성주, 윤민수 다섯 아빠와 아이들이 강원도 강릉에 있는 현덕사를 찾아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08배 몰아주기' 게임으로 고무신 던지기가 시작됐다.

심판을 보던 현종 스님도 흥미를 느끼고 고무신 게임에 참여했다. 현종 스님은 고무신을 멀리 던지기 위해 발을 뒤로 쭉 빼고 차다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아빠들은 웃음을 터뜨렸

고, 현종스님 역시 멋쩍게 웃으며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빠 어디가 고무신 던지기 게임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빠 어디가 고무신 던지기 게임, 스님 괜찮으신가요?" "하마터면 스님 큰일 날뻔 했네" "스님들의 색다른 면을 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혜숙 기자

## 내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는 시간여행

극단 자유바다 '나무목 소리타'... 주인공 깨달음의 과정 그려내

불교에서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생은 고타(苦)이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연과과보의 원리를 주제로 한 작품이 대중들을 곁을 찾아가고 있다. 극단 자유바다(대표 강해란)의 '나무목 소리타' 공연이 7월 2일~4일까지 부산시민회관소극장에서 그 막을 올린다.

연극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내 고통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의문에서 이야기는 비롯된다. 왜 임마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주인공 고민우는 반항아로 자란다. 그는 군대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군 교도소에 가게 되고 이후 사회로 나와 횡성요리사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가 탁발승, 장녀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면서 부모의 과거를 알게 된다. 이를 통해



극단 자유바다의 '나무목 소리타'이 7월 2일~4일까지 부산시민회관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자신의 현재가 그리고 자신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고 마을의 단장나무로 목탁을 만들게 되는데...

극단 자유바다 강해란 대표는 "주변의 사람이 이유 없이 미운 것도, 또 그냥 좋은 것도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우리의 업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우리의 현재는 그

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모두는 인연과과보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 고민우의 원인 모를 고통과 분노를 따라가며 죄와 벌, 더 나아가 업과 인연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051)441-2733

정혜숙 기자

## 불자 가수 아웃사이더 3집 '슬피우는 새' 발표



불자 가수 아웃사이더(사진)가 3집 '슬피우는 새'를 발표했다. '슬피우는 새'는 아내가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 화석이 되었다는 전설의 돌 망부석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아웃사이더의 감정이입이 돋보이는 작사와 가수 이수영의 목소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또한 뮤직비디오는 배우 이종문이 노גע런티로 출연해 화제다.

한편, 아웃사이더는 청소년을 위한 토고 아파쇼와 해민 스님과 힐링콘서트를 함께 참여해 오면서 군중교구와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 (300여년을 이어온 팔공산 염불송)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염불인생 50년을 수행해온 (동현)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신 스님이나 차기후계자의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소승에게 맡겨주시면 책임지고 성심껏 지도해드리겠습니다.

(교육현황) ※ 본강원에서는 일반교육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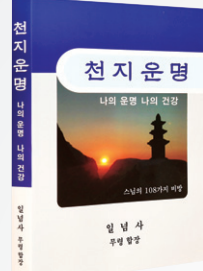
<b>초급 의식 염불과정</b>		초급 교육 과목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식, 초석중성염불, 각단예불 행선축원, 사사마지불공, 관음시식 구병시식, (상가)시달림염불.
속성	3개월	주 1회	매주 : 수요일 오후 3시~6시까지
<b>중급의식 과정</b>		중급 교육 과목	시연, 삼신이운, 104위신중작법, 화천수, 당일천도 및 49제이식, 다비편 방생편, 각종고사 불상 및 행화점안, 위패집는법, 전오리는법, 사물 지위집는법, 축원문작성, 요점식, 천수경, 정근북 신중작성법, 가지계곡, 화청 (회심곡)
속성	7개월	주 1회	매주 : 금요일 오후 3시~6시까지
<b>작 법</b>		교육 과목	복청계,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3개월과정	주 1회	매주 : 토요일 오후3시~6시까지	
모집인원	초급생 : 20명 중급생 : 20명 작 법 : 10명	27기생 모집기간 : 수시모집 27기생 첫수강일 : 2013년 6월 26일 (수요일, 초급반, 수업시작)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에 직접나오셔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2동 871-1번지(우방미진하이츠)정문맞은편

TEL : 0531781-4200, 851-2666 HP : 010-3424-0108

## 천지운명

불자 여러분들에 건강과 운명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 주는 책!



서산대사께서 입적하기 직전 읊은 시  
나의 운명 나의 건강, 108가지 민간요법  
108가지 약초 담그는 법  
108가지 꽃 효소 만드는 법  
치유와 깨달음의 미학, 달마도  
무량 지음 | 신국대판 | 1474페이지 | 장가 50,000원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이 책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졌고, 첫 페이지에는 서산대사께서 입적하시기 직전에 "윤은 시"와 "권효가"가 들어있으며 우리들의 운명과 건강이 자세하게 설명 되어있습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 즉, 효소 담그는 방법, 여러 가지 약재를 만드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운명"은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볼 수 있게끔 특별히 각각 수록되어 있어, 모두 돌려 앉아 서로가 서로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정말 신비로운 책입니다.

**스님의 108가지 비방** 소승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약초 쓰는법" "약초 담그는 법"을 12년 동안 중국을 오가며, 연구하여 정성으로 불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는 각 사찰 스님들께는 30%로 할인을 해드리면서, 꼭 스님분들이 알아야하는 비방법을 써서 전국 사찰 스님께 소정에 값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은 꼭 스님 분들만 알고 계시야 불자들이 답답하고 힘들때, 모방으로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책으로서 다음 회에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번호와 사찰명을 잘 알아 두셨다가 꼭 주문하세요. 각 사찰 스님들에게서는 이 책을 잘 읽어 보시고 불자들에게 많은 포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24-119번지  
**대선불교조계종 천운사 무령 합장**  
전화 032)655-1356 / 팩스 032)664-1356 / H P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 신한 110-113-445631(예금주 : 장지업)

**우라본점**  
범보시  
특별할인!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리  
**만화 지장경**  
정일선사 지음  
468페이지 | 304쪽 | 12,800원

**정일 선사, 지장경 300독 후 '이렇고?' 화두 내려**

지장경은 부처님이 도리전에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한 대승경전. 갖가지 신통력으로 이수라, 지옥, 아귀, 육도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려는 지장보살의 큰 서원을 말씀하신 경이다. 조계종의 대표적인 신사인 故 정일 스님(선학원 이사장, 보광사 조실 역임)은 생전에 <지장경> 300독 독송을 통해 불심과 신심, 효심을 배양하고 이를 참선수행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강조해 왔다. 이 만화는 정일 선사가 직접 감수한 책.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lumSotong (02)2632-8739